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 11월 10일(월)부터 원서접수  
 학 부 : 12월 1일(월)부터 원서접수  
 문의 : 02-944-5000(학부)/5500(대학원)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http://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

Seoul Cyber University 2014 Autumn Vol. 26



DT브랜드파워대상



2014 AUTUMN  
 Vol. 26

아세안사이버대학(ACU)  
 이러닝 고등교육 워크숍 단체사진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 SCU e야기

SCU SPECIAL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4학년도 후기 오리엔테이션

SCU FOCUS  
 사회복지학부 경쟁력 강화사업  
 ACU 이러닝 고등교육 워크숍

SCU CLASS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 특강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http://www.iscu.ac.kr)



펼쳐지는 미래의 환희  
2011  
샤를르 벨 Charles Belle

## 로맨틱한 화가, 샤를르 벨

샤를르 벨은 '회화란 100% 감정이자 철학적인 감각'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은 로맨틱한 화가라고 자부한다. 그의 작품은 계절을 테마로 하는 작품부터 꽃 정물까지 항상 자연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청색이나 노랑 등 생생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강렬한 색채 대비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한다.

## contents

### SCU Special

- 04•05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06•07 2014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08•09 재학생을 위한 소프라노 오미션 독창회
- 10•11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
- 12•13 국토 종단 대장정

### SCU Focus

- 14•15 사회복지학부 경쟁력 강화사업
- 16•17 ACU 이러닝 고등교육 워크숍
- 18•19 제8회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 20•21 인디애나대학교 학술교류 협의
- 22 이은주 부총장 세계대학총장협회 이사 선임
- 23 개도국 방송통신전문가 서울사이버대 견학

### SCU People

- 24•25 신입생 인터뷰
- 26•27 해외명사 인터뷰
- 28•29 레바논 난민지원활동 서현정 동문

### SCU Today

- 30•31 캠퍼스 부서탐방
- 32•33 SCU 멘토링 결연식
- 34 SCU 마라톤 클럽 발대식
- 35 국립발레단 주요 인사 상견례

### SCU Class

- 36•37 사회복지학부 해외현장실습
- 38 부동산학과 특강
- 39 대학원 화상교육세미나
- 40 군 관련 특강
- 41 서강대 유기풍 총장 특강

### SCU News

- 42•43 공모전 소식
- 44•48 학교 소식
- 48•49 교수 동정
- 50•51 SCU 문화산책





01

오늘의 End가 아닌 내일의 And를 꿈꾸며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학사학위 952명, 석사학위 83명 배출
- 추억을 선사하는 웹툰 포토 행사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미아동 본교 캠퍼스 차이크프스키홀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01년 개교 이래 총 2만 1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을 비롯,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원식 이사, 서울대 총장을 지낸 조완규 이사, 김영동 이사, 김진수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춘 이사, 함용도 이사, 정오영 감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학위자 952명, 석사학위자 83명(사회복지 38명, 상담심리 45명) 포함, 총 1,035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최고령자인 48년생 이미자씨(67세, 사회

복지전공), 김덕수씨(67세, 법무행정학과)와 최연소자 윤연아씨(22세, 상담심리학과)가 포함되었다. 특히 최고령자로 졸업한 이미자씨는 2013년 3학년도 편입하여 1년 6개월 만에 조기졸업해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행사는 이은주 부총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학위증 수여, 시상, 축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시상에서는 전체 공동수석으로 이사장상을 받은 박미숙씨(사회복지전공), 강연희씨(상담심리학과)를 비롯해 총 29명(학부 20명, 대학원 9명)의 졸업생이 총장상, 봉사상, 공로상,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초대 총장을 역임한 김명수



02



03

- 01 학위수여식 후 학과별로 추억을 남기는 단체사진
- 02 수상자에게 축하패를 전달하는 강인 총장
- 03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전하고 있는 김명수 박사
- 04 강인 총장과 귀빈들이 함께 사진촬영하는 모습
- 05 웹툰 포토 이벤트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하는 강인 총장

박사가 직접 축사를 하였다. 김명수 박사는 그간의 성실한 대학생활과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졸업생의 앞날에 큰 영광과 뜻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학위수여식의 백미는 세계적인 스포트라노 성신여대 오미선 교수의 축하 공연이었다. 오미선 교수의 축하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학위수여식은 마치 축제의 현장처럼 그 열기가 고조되었다. 학위수여식이 모두 끝난 뒤 이어진 각 전공 및 학과별 포토타입에서 졸업생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울사이버대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쌓으며, 앞으로 더욱 꿈을 향해 매진하고 서사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였다.



04



05

**웹툰 포토 행사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위수여식 때마다 '캐리커처', '희망트리', '금메달수여식' 등 졸업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졸업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웹툰 포토'를 식전행사로 마련했다. 이는 웹툰 속 졸업식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 축하메시지가 적힌 말풍선, 그림 꽃다발 등의 소품을 이용해 가족, 동기, 선후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졸업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 입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의 장

# 2014학년도 후기 오리엔테이션

- 본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 하반기 입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본교 차이크로프스키홀에서 2014학년도 후기 신입생, 편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입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특히 전기(상반기)에만 진행했던 행사를 하반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확대 개편해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대학생활 및 학사제도 안내, 수업운영방식과 수강신청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였다.

한편 보다 내실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매년 외부 초청 강연을 펼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는 이번 하반기 오리엔테이션 초청강연자로 SBS 파워FM(107.7)기 진행자, 이숙영 아나운서를 초청했다. 이숙영 아나운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생의 프로그가 되라!'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숙영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프로그가 되는 방법으로 일을 즐기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학부(학과)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동기로서의 정을 두텁게 했다. 또한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학부(학과)별 소모임을 열어 동기 및 선후배와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생들이 이같은 학부(학과)별 모임을 통해 대학생활의 기본을 배우며 낯선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학과)별로 운영 방식과 학업 방식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배, 교수들이 모여 학부(학과)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꾸려야 하는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틀과 학업방식을 세우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01 강연 전 강인 총장과 환담하는 이숙영 아나운서  
 02 하반기 입학생과 서울사이버대 교수진의 상견례 시간  
 03 인생의 프로그가 되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이숙영 아나운서  
 04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하반기 입학생들

서울사이버대 강인 총장은 “하반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확대 진행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동기 및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는 이외에도 학교생활 중 온라인에 제한되기 쉬운 학생들의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동기 및 선후배간의 만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만남의 날, 체육대회, 문화의 날 행사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한 천상의 목소리

# 힐링을 안겨 준 소프라노 오미선 독창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명품문화행사
- 교직원 및 재학생 약 400여 명 성황리에 관람



## PROFILE

Soprano  
오미선

〈학력〉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베스카라 음악원 Diploma 및  
티칭과정 Diploma

베스카라 아카데미아 오페라학과,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베나미노질리 아카데미, 비오티 아카데미  
Diploma



지난 9월 3일(수), 2학기 강의가 막 시작된 시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또 하나의 문화행사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오미선 독창회가 그것이다. 지난 학위수여식 때도 축하를 불러 본교와 인연이 깊은 오미선 교수(성신여대)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독창회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강인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교직원 및 학생들까지 약 400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서울대학교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I Vespri Siciliani)를 시작으로 벨리니, 바그너, 모차르트, 푸치니 등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현대인들에게 음악은 이제 가장 중요한 힐링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삶의 힐링이 되는 시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앞장서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이다.



- 01 소프라노 오미선 독창회 메인 포스터
- 02 공연 전 강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단체 촬영
- 03 소프라노 오미선 교수의 공연 모습
- 04 공연 전 귀빈실에서 다과를 즐기는 내빈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하고 프리마돈나 앙상블이 선사한

# Voice of KOREA

- ▶ 대한민국 프리마돈나 앙상블 국립연해주오페라발레극장에서 공연
- ▶ 한러문화예술협회와 극동연방대학교의 파트너십으로 성공리에 개최
- ▶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문화교류 발전과 증진에 새로운 동력 부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하고 한러문화예술협회와 극동연방대학교가 주최한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이 지난 9월 28일 국립연해주 오페라극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순회공연으로서 극동연해주지역의 한인어주 1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은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모연 부총장, 한러문화예술협회 김선명 감사(현 푸쉬킨하우스 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경대 수석부위원장 및 일행, 블라디보스토크 이양구 총영사, Irina Miklushevskiya 연해주지사 부인, 극동연방대학교 Sergey V. Ivanets 총장, Vladimir I. Kurilov 법대학장 겸 해외협력부총장, Yuri Alexandrovich Gulyagin 차장검사, Aleksandr Alekseevich Khizhinskiy

고등법원장 등 한국과 러시아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회장은 “한국에서는 러시아를 생각할 때 먼저 연해주를 연상한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연해주와 한국간 문화 예술분야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우의가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세웅 회장은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Vladimir Miklushevskiy 연해주연방주지사, 극동연방대학교 Sergey V. Ivanets 총장 등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01



02

연해주지역의 교육, 과학,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이번 순회공연의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극동연방대학교 Sergey V. Ivanets 총장 또한 “올해는 한·러 양국 사이에 중요한 문화가 많은 풍성한 해”라면서 “프리마돈나 앙상블” 순회공연은 한러문화예술협회와 극동연방대학교의 오랜 우정과 교류로 다져진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며,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의 문화교류 발전과 증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한편 이세웅 회장은 9월 25일(목)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부지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문화교류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같이하고, 9월 26일(금)에는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명예 법학박사 수여식에 참석하여 Vladimir I. Kurilov 법대학장 겸 해외협력부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9월 27일(토)에는 이화여대 신지화 교수의 공연, 28일(일)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을 관람 후, 마지막으로 9월 29일(월)에 연방주지사 영빈관을 방문, Vladimir Miklushevskiy 연방주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4박 5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03



04



05

01 · 02 국립연해주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  
03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에 큰 호응을 보내는 관객들 모습  
04 Vladimir Miklushevskiy 연방주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세웅 회장  
05 이세웅 회장(좌)과 Vladimir I. Kurilov 법대학장 겸 해외협력부총장

## 프리마돈나 앙상블은

국내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 1997년 창단되어 매해 꾸준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성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김덕기 지휘자(서울대 음대 교수)와 함께 90여 명의 프리마돈나들은 오페라 아리아, 가곡, 칸초네, 외국합창곡, 한국합창곡, 캐롤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예술성 높은 작품들로 어우러진 프리마돈나 앙상블의 정기 공연은 많은 음악인과 음악애호가들이 꼭 봐야하는 필수 공연으로 인정받고 있다.

# 꿈을 향해 끝까지 완주하는 릴레이 국토대장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7월 4일(금)부터 7월 26일(토)까지 1,000km에 달하는 국토 종단 대장정을 실시하였다.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산, 임진각, 서울사이버대를 잇는 릴레이 대장정이었던 이번 행사에 각 지역의 캠퍼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대학에 대한 애교심을 느끼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꿈을 향해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국토 종단 대장정. 그 뜨거운 열기가 살아 숨쉬는 현장 속으로 지금 따라가 보자.



## BRIEF INTERVIEW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4대 총학생회장 김광국

Q. 이번 국토 종단 대장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실 20박 21일간의 생업을 포기하고 국토 종단 대장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학우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혹은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 각 지역의 캠퍼스를 잇는 릴레이 국토 종단 대장정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부담없이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있도록 말이지요.

Q. 이번 국토 종단 대장정에 도움을 주신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A. 먼저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강인 총장님, 학생 처장님, 그리고 각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함께 걷고 서로 이끌어 준 학우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어떤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단결하고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서사대인으로 열정과 꿈을 위해 쉽 없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km의 국토대장정 종단을 해내신 것처럼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사이버대 학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 열린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다!

사회복지학부는 2013년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경영,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전공 등 총 5개 전공으로 학제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이러한 학제개편을 토대로 각 전공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쟁력 강화사업의 핵심은 바로 '열린 교육'이다. 각 전공별 수업을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라면 모두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지식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정한 복지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부 경쟁력 사업에 대해 각 전공별로 알아보았다.



## 핵심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중점적으로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30대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40, 50대의 중년기를 맞이한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연령 특성상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공감, 성실한 업무태도는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반면, 정보의 수집과 활용능력, 문서정보의 이해와 평가능력 등의 핵심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전공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한 핵심직무 4대 영역을 정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4대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사례관리 역량, 2. 사회복지상담 역량, 3. 재가복지지원(가시간병서비스) 역량, 4. 사회복지프로그램 능력이며 이를 각 영역별로 현장전문가의 특강, 시연과 자기평가, 전문특강 내용의 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시행된다.

## 노인복지현장 전문가로서의 실천역량 강화사업 - 노인복지전공 -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이며, 노인복지전문가 양성은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이에 본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에서는 노인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노인복지현장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실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공 경쟁력사업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도 노인복지전공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현장전문가로서의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룹별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학습조직은 1. 치매노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치매노인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세 개의 학습조직(스터디그룹)에 속한 그룹별 10~20여 명의 학생들은 현장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스터디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에 대한 실천 인재 양성 - 복지시설경영전공 -

사회복지경제조직은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움직이지만 그 목적이 취약계층의 자립이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있는 경제조직이 바로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복지시설경영전공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친 경쟁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 9월 13일(토) '사회적 경제조직 이해와 전문 모델'에 대한 현장 특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시 사회적 경제조직센터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실제 어떻게 만들고 자원은 어떻게 연계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 특강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에 관해 배울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공모하여 선정팀에게는 전문가들이 직접 창업컨설팅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12월 13일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준비'라는 주제로 복지시설경영 아카데미를 정리하는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시설경영 홈페이지 참조)



01 경쟁력 강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정상원 교수  
02 전공학생들이 직접 강연하는 아동복지전공 특강  
03 사회복지학부 전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 오픈 특강  
04 복지시설경영전공의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과 운영에 대한 아카데미

## 학생 개인의 임파워먼트 및 네트워킹 강화 - 아동복지전공 -

2014학년도 신설된 아동복지전공은 입시지원자와 재학생 상담, 초점집단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보육 및 아동복지현장에서의 유용한 실무기술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여, 실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경쟁력사업을 준비하였다. 아동복지전공 경쟁력사업의 포인트는 학생 개개인의 실무기술 향상 및 임파워먼트, 학생들간의 네트워킹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공관련 직무종사자인 학생들의 특강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학우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기술을 향상하고 유대관계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1월 22일 전공 워크숍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할까?) 및 아동문제행동이해(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우기) 특강을 통해 아동복지 전문가로서의 기본 태도와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자격증 취득 및 전문영역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 청소년복지전공 -

청소년복지전공 학생들은 자격증 획득과 실무현장 경험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것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청소년복지전공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민간자격증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쟁력 사업을 마련하고 현장전문가 특강을 통해 실무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총 3개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먼저 '진로개발 역량강화 라운드 테이블 운영'이다. 이는 각 전문자격증에 대한 이해와 실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실천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이다. 이러한 워크숍은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전공홈페이지에 게재,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습도우미 미니북 제작이다. 이러한 미니북은 자격증, 실천이론, 일자리 정보, 학습방법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채워진다.

복지분야는 그 학문적 특성상 이론적 수업으로만으로는 학생들의 지식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현장 밀착형 교육과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 병행만이 진정한 통섭형 복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회복지학부 경쟁력 사업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이번 경쟁력 사업의 결과가 그래서 더욱 더 기대가 된다.

# 아세안 이러닝의 새 지평을 열다!

- 서울사이버대, 아세안사이버대학(ACU) 이러닝 고등교육 워크숍 개최
- 아세안 각 대학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닝의 발전 및 운영방향 모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아세안 국가의 이러닝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러닝 고등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9개국 이러닝 담당자들과 국내 교수 학습전문가들이 모여 총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아세안을 위한 이러닝의 새 지평(New Horizon of e-Learning through ASEAN)"이란 주제의 이번 행사는 첫날인 17일(수), 각국 이러닝 담당자들이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이러닝코리아 2014'에 참석해 발전된 스마트러닝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시연했으며, 국제 이러닝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세안 대학의 이러닝 수업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리고 18일(목)부터 서울사이버대에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이후 각국 대학의 이러닝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이러닝 고등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 향후 아세안 이러닝 모델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 관계를 긴밀히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사이버대가 준비한 CULTURAL EVENT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사이버대 구리당에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남경호 교수의 홍보가 '박타령'과 최현정 교수의 전통무용 '호남산조춤' 등 한국 전통 공연이 열린 것이다.



- 01 이번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사이버대 교직원들
- 02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
- 03 워크숍에 참가한 필리핀 국립대부설개방대학 알폰소 총장
- 04 남경호 교수와 워크숍 참가자가 함께 흥보가를 시연하는 모습
- 05 공연 관람 뒤 단체 기념 촬영

공연이 끝난 후 남 교수와 일부 참가자들은 직접 함께 박을 타는 장면을 시연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회식에서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부총장은 "지난 1년간 아세안 각 국가들의 이러닝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각 국가 이러닝 시스템의 많은 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성공적인 워크숍을 축하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 역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진정으로 아세안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더욱 이러닝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아세안사이버대학(ACU)은**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는 교육부가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다. ACU 프로젝트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의 이러닝 역량을 강화하여, 이러닝을 통한 고등교육 질 향상과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에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측 주 협력대학으로 선정되었고 프로젝트를 전문화를 위해 2012년 본교 내 아세안사이버대학 사무국이 출범하였다.



01



02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음의 가능성에 투자하다!

-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후원으로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대회 개최
- 총 64개교 1,180개팀이 참석하여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26개팀 선정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심사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사이버대학교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

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기능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서울사이버대 또한 고등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음의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이번 대회를 후원하게 되었다.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매년 ‘기계·전기, IT, 디자인, 생활아이디어’ 총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되며, 올해에는 총 64개교

01 포토월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 학생들  
 02 자신의 아이디어를 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학생들의 모습  
 03 본교에서 열린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04 대상 수상작 ‘팔찌로 변신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1,180개팀이 참가하여 1차 학교별 예선을 통해 219개팀을 대상으로 본선심사 및 변리사의 선행기술 조사 확인을 거쳐 최종 26개팀을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대진디자인고 2학년 김효진양과 유혜진양의 ‘팔찌로 변신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가 차지하였으며 금상은 일회용 간편한 비닐장갑꽃이를 만든 성수공업고 학생들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6일 성동공고에서 개최하였으며 수상팀 배출학교에는 실습실 개선비용, 특허등록비 등 총 2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수상학생에게는 서울시장 상장 및 해외 우수기업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또한 이번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들이 지닌 젊음의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투자를 해나갈 것이다.



03



04

**인디애나대학교  
개관**

개교시기 1820년 1월 20일

유형 주립 종합대학

교훈 Lux et Veritas  
(Light and Truth: 빛과 진리)

학생수 10만 9,445명(2011)

전임교원수 8,685명(2011)

관련사이트 <http://www.indiana.edu>

# 학술교류 협의를 위한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총장 Michael A. McRobbie)의 초청으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양 대학교의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학술교류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인디애나대학교는 1820년 개교하여 현재 메인 캠퍼스인 블루밍턴 캠퍼스를 포함한 총 9개의 캠퍼스에 12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주립종합대학교로서 2014년 US News가 선정한 미국 MBA 순위 21위(블루밍턴 캠퍼스 켈리비즈니스스쿨)에 올라 있는 중동부 지역 명문대학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은주 부총장(대학발전추진단장), 정상원 대학원부원장, 남상규 교무지원실장(대학발전추진단부단장) 등이 함께 하였다. 금번 방문기간 협의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디애나대학교는 양교 간 상호 이익 및 공동 관심 주제와 관련한 학술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방문일정 중 먼저 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 캠퍼스를 찾은 방문단은 코코모캠퍼스 7대 총장에 취임하는 Susan Sciame-Giesecke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이를 축하하였다. 또한 인디애나대학교의 온라인 수업의 시연 및 참관을 통해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보고 각 대학의 차이점 및 장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를 방문  
Michael A. McRobbie 총장 예방
- 인디애나대학교(코코모 캠퍼스)  
Susan Sciame-Giesecke  
총장 취임 축하 및 감사패 전달
- 양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학술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협력 방안 논의

01 Susan 총장의 취임식 광경  
02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전경  
03 Susan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은주 부총장  
04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Michael A. McRobbie 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함께 한 방문단



01



02

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인디애나대학교는 가상현실시스템인 'second life' 등 외부 도구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인디애나대학교 교수진으로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IMS IMPACT 어워드 수상, 아세안 10개국과의 한-아세안사이버대학교 설립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통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러닝 수준과 위상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단은 또한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그리고 경영학 등의 전공학과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학문분야별 공동 학술교류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메인 캠퍼스인 블루밍턴 캠퍼스로 이동한 방문단은 로벨 교무부총장, 국제교육개발지원센터장 등을 만나 인디애나대학교의 국제협력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현황을 듣고 양교 간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번 인디애나대학교 방문 결과 미국의 명문대학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과 앞선 이러닝 수준에 대하여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온라인 대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3



04

# 서울사이버대의 온라인 교육을 세계가 인정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대학총장협회 회원 대학 중 유일한 온라인대학



01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부총장이 세계대학총장협회(IAUP,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이은주 부총장이 세계대학총장협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표로 꾸준히 참석하여 한국의 이러닝 현황과 온라인대학 발전에 대해 발표한 것과 더불어 한국의 질 높은 온라인 고등교육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대학총장협회의 회원 대학 중 유일한 온라인대학교로서 이번 이사 선임을 계기로 더욱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총장은 “세계대학총장협회와 같은 명망있는 조직의 이사로 선임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대학 또한 온라인 교육의 도입 및 응용이 대학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 명문대학들과 교육의 질에서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 만족도와 교육효과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아세안 사이버대학교설립 프로젝트를 필두로 우리 대학과 한국 이러닝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세계대학총장협회(IAUP)는

196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21개국 120여 개 대학의 대표자들이 모여 창립된 IAUP는 각 대학의 총장, 부총장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80개국을 대표하는 6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100여 개국의 수백 명이 넘는 멤버가 국제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모이고 있다.



01 세계대학총장협회에서 온라인대학 최초로 이사에 선임된 이은주 부총장  
02 9월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AUP Semi-Annual Meeting 단체 기념촬영

# 親 서울사이버대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개도국 방송관련전문가 본교 현장 견학



01 지난 7월 22일(화)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16명의 개도국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 견학이 실시되었다. 이번 견학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서울사이버대에 기관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벨리우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우간다 등 총 4개국 16명의 정보접근센터 관련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기자재 활용 방안, 한국의 ICT 정책 현황, 보안 솔루션 및 시스템 SOC 운영 관련 역할 및 책임 등 해외시스템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최신 정보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진 서울사이버대 방문에서 참석자들은 본교의 최신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 직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초청연수는 7월 20일(일)부터 7월 26일(토)까지 6박 7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사이버대 기관 방문 외에 KISA, 유관기관, 보안기업 정보보호전문가들의 정보접근센터 시스템 운영 강의, 국가별 정보접근센터 운영전략 공유, 한국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최신 정보 네트워크뿐 아니라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01 본교 방송 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 현장  
02 본교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

#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고 음악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수더분함. 이동섭 학우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이었다. 총 40여 개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음악인이라는 타이틀보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즐기는,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네 보통 이웃인 것이다. 2014학년 2학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동섭 학우(문화예술경영학과 1학년)를 만나보았다.

### “악기마다 가진 특별한 소리가 좋았습니다”

이동섭 학우가 처음 악기를 연주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우연히 통기타를 접하면서부터이다.

“통기타를 시작으로 음악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다양한 악기를 접하면서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수도 40여 개, 가야금과 해금과 같은 국악기, 색소폰, 팬플룻 같은 서양악기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연주자가 세명 밖에 없다는 고주파 악기 테라민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악기 자체가 제게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남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악기마다의 특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찾아가입니다”

9년 동안 라이브 카페를 운영해 오다 최근 음식점을 개업한 이동섭 학우. 그러나 그와 음악을 여전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각종 축제나 행사에 초대받아 악기 연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센터나 노인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은 제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힘든 분들이 제 연주를 듣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소아마비를 앓다 돌아가신 큰 형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욱 남 같지 않았어요. 형님이 살아계실 때 무지개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 추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 “문화예술을 통한 경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듯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동섭 학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악기 연주는 자신 있었지만 항상 이론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술을 통한 경영을 하고 싶어 대학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어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럼 없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타 사이버대학교와 달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프라인 모임이 무척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많아 참석을 못했지만 문화예술경영학과 MT와 같은 대학생들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01 국내에서 세명 밖에 다룰 수 없는 악기 테라민을 연주하는 모습  
02 2014 문화예술경영학과 MT현장

### “저만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인연. 이것이야말로 이동섭 학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스스럼없이 형이라 부르고 20년 넘게 군 시절 중대장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제주도에 큰 라이브 극장을 만들어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을 초대해 콘서트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부는 물론 학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저만의 경쟁력을 쌓아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국제원격교육협의회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집행위원장 티안 베라와티(Tian Belawati) 박사



01

66

ICDE는 전 세계 60개국 140여 개 온·오프라인 대학  
원격교육연구소 이러닝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 원격교육 협의체입니다

99

**1**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ICDE는 원격교육에 대한 정책제언, 국제적 원격교육 동향 파악 및 교류, 공동연구, 회원 고등교육기관 원격교육 질 관리 인증심사, 학술지 발간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938년 설립되었으며 최초 사무국은 캐나다에 개소하였는데 이후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 140여 개 온·오프 대학, 원격교육관련 연구소, 이러닝 기업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유엔교육사회문화기구(UNESCO)의 일반협의 비정부기구(NGO) 지위를 갖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적 원격교육 협의체입니다. 주요 회원 대학으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스톡홀름대, 영국 개방대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아시아인으로 ICDE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취임 이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2009년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니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북미와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고 회원기관의 분포도 여러 대륙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격교육에 대한 대륙 별 동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교류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3** 작년에 이어 올해도 MOOC(온라인 대중공  
개강좌)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  
고 있고 특히 향후 원격교육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  
떻게 보십니까?

MOOC의 인기가 대단하죠. 저는 원격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강인원에 대한 강의운영문제와 서구 대학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자의 경우, 수강생들의 약 5%만이 수료를 하고 있고 더불어 이러한 강의의 수강대상이 일단 영어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의 수혜를 받는 일부에 해당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현재로서는 MOOC가 원격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중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쟁적(competitive)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4** 위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원격교육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나요?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업기술연구원을 졸업한 후, 인도네시아 방송통신대학(Univ. of Terbuka)의 세띠자디(Setijadi) 총장님을 보좌하는 동시에 강의를 의뢰 받은 것이 1985년입니다. 당시에는 잠시 머무를 생각으로 수락을 했는데 강의를 할수록 원격교육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잔류를 결정하고 열정을 다하다 보니 기회가 생겨 캐나다 시몬 프레이저(Simon Fraser)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대학에서 성인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인도네시아 방통대로 돌아와 교무부총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온라인 튜터링, 온라인 학습자료(OER),

온라인 시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을 시켰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방통대 역사상 최초 여성총장으로 선출되어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5** UT(인도네시아 방송통신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UT는 1984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45번째로 개교한 국립대학입니다. UT는 경제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약 70만 명의 학·석사과정 학생들이 수학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ICT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어 수업 방식은 인쇄, 방송미디어,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대학총장과 ICDE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많이 바쁘고 해외출장도 많을 것 같  
는데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시나요?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와 강연의뢰, 학교행정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최우선순위는 총장으로서 몸담고 있는 UT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의를 제외한 ICDE 집행위원회 월간회의는 주로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ICDE 주요 컨퍼런스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제가 직접 참석하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7**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상은  
어떠셨나요?

물론이죠. 방문할 때마다 세련되고 첨단기술이 돋보이는 역동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한류의 인기가 인도네시아에도 대단합니다. 저야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나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8** 원격교육전문가로서 서울사이버대에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주  
시겠습니까?

전에 MOOC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개방성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나름대로 대중들을 위해 자체 MOOC를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스를 수 없다면 오히려 서구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 정서에 맞게 MOO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ICDE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회원 원격교육기관들을 대상 질 관리 인증서비스를 2013년에 개시하였는데 저희 대학도 인증심사를 받은 결과, 합격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울사이버대도 이러한 국제인증을 통해 고품질 원격교육을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2

01 UT(인도네시아 방송통신대) 총장실에서 티안 베라와티 박사  
02 2014 국제원격교육 컨퍼런스 현장에서

# 함께 나누고 돕는 일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서현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지난 2005년부터 중동에서 NGO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예멘에서 현지의료인 역량강화 사업을 그리고 2차 사업은 이곳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고1, 중3)이 있습니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부끄러우면서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열악한 환경의 난민캠프촌  
02 함께 일하는 현지인 간호사들과  
03 클리닉에서 시리아 난민 건강관리 요원들 교육 모습  
04 이동진료 나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Q** 먼저 난민지원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병원(전주예수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와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다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가 결혼 16주년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무했던 전주예수병원은 116년 전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외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 세운 병원입니다. 그 곳에서 일하는 동안, 먼 곳에서 찾아온 파란 눈의 낯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도움이 참 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울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처음에는 예멘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 처음 예멘에 NGO(PMCI, 국제의료협력단) 멤버로 들어가 정부병원에서 현지 의사/간호사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의료인이다 보니 이 일을 함께 구상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 중반기부터 2년 동안 잠시 안식년의 시간을 갖고 있던 중 '아랍의 봄'의 풍파로 몸살을 앓고 있던 예멘이 여행 금지국이 되었고 그런 저희에게 레바논 시리아 난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료 NGO인 글로벌케어에서 KOICA의 지원을 받아 난민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들어갈 팀을 찾고 있었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은 여러 국제기구가 들어와 난민들을 돕고 있지만, 의료팀이 상주하며 체계적으로 난민들을 돕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Q** 현재 레바논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레바논은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약 450만 정도인데 그 중의 1/3이 넘는 숫자인 약 15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자체가 너무 어렵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기도 힘들다. 저희는 KOICA의 지원을 받아 이런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지 의료 NGO와 협력하여 작은 클리닉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더불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통해 이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난민 캠프촌이나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OICA 지원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싶어도 한계가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Q** 서울사이버대의 배움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간호대학을 다닐 때부터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공부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중 남편이 공부를 하던 사이 저도 서울사이버대학을 통해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훌륭한 교수진을 통한 강의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질 높은 강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사이버대학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픈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도 서울사이버대에서 공부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많은 학우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40대 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동에 나와서 활동을 시작한지 1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 나왔던 30대 초반에 좀 더 일찍 이러한 일들을 시작할 걸 하고 조금은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돕는 일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과연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작은 달란트나 수고가 그래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필요한 곳에 좋은 역량을 발휘해 나가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평생동안!

# SCU의 모든 것을 경험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경험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는 각종 홍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된다. 그리고 입학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만나며 이후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평생교육도 누릴 수 있다. 홍보, 교육 콘텐츠, 대학원, 평생교육까지, 처음부터 평생동안! 서울사이버대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네 곳의 부서를 만나 보자.

취재자 황은혜 학생(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 출판부

### 서울사이버대의 첫인상을 담당하다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홍보물 제작·관리를 담당하는 출판부이다. 대학에 있어 첫인상은 입학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무척 중요하다. 그러기에 출판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 출판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출판부는 대학학술교재와 교양도서의 간행 및 보급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의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부분의 각종 인쇄출판물 등 대학 홍보에 필요한 모든 홍보물 제작에 있어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선 각 매체를 통해 대학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방향과 교육이념이 홍보 매체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면 홍보의 효과도 극대화 되어질 것이며, 긍정적인 대학이미지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서 구성원 모두가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함께 홍보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출판운영팀·홈페이지운영팀 구분없이 하나의 홍보물이 완성될 때 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치 A동 1층 행정실

Interviewee 출판부 김은수 계장



### 최상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

좋은 첫인상에 이끌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교육을 최상의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곳, 바로 콘텐츠 개발팀이다.

#### 콘텐츠 개발팀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흔히 사이버대 교육이라고 하면 교수님의 영상 강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뷰, 질의응답, 플래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한 주차 강의 내용을 교수님께 받아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 팀원들의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담당 7명, 교수설계 담당 9명 등 타 부서에 비해 저희 부서의 인원이 많습니다. '최고의 교육콘텐츠'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팀원들에게 분업화된 일을 하는 중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치 B동 7층

Interviewee 콘텐츠개발팀 김시원 부처장



## 콘텐츠 개발팀

## 대학원 교학팀

### 대학원 행정 서비스를 책임지다

이런 최상의 교육이라면 분명 대학원 교육도 욕심이 날 것 같다. 보다 더 깊은 학문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이 있다.

#### 대학원 교학팀의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학사행정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곳입니다. 또한 주된 업무인 학생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대학원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일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서울사이버대 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과 상담심리대학원이 있습니다. 각 각 사회복지전공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공은 사이버대학 유일의 석사과정이며 상담심리전공은 원격대학원 중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입시경쟁율도 높고 2012년, 2013년 교육부에서 정원 증가 승인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치 B동 106호 Interviewee 대학원교학팀 김호중 팀장



## 평생 교육원

###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의 동반자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평생교육시스템까지 최고로 갖추고 있다.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의 손길을 펼쳐가는 곳, 바로 평생교육원이다.

#### 평생교육원의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은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과목, 자격증 취득에 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 평생교육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 지역주민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은 특히 상담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도 온라인에서는 이론 교육을 배우고 오프라인에서 기출문제 풀기와 같은 스터디모임을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및 군인가족, 지역 주민 등 상대적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서의 노하우와 우수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교육모델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평생교육원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위치 B동 106호 Interviewee 평생교육원 박용원 부원장



세대를 초월하여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01

- ▮ 2014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개최
- ▮ 멘토 인증서 수여 및 포트폴리오 시상식 진행



02

- 01 멘토&멘티에게 축사를 하는 강인 총장
- 02 멘토링 결연식을 마친 후 전체 기념 촬영
- 03 포트폴리오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채지나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는 8월 23일(토) 오전 11시 본교에서 2014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학생처장의 1학기 멘토링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로 시작된 이번 결연식에서 강인 총장은 “이번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아청년대회에서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자는 춤을 출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비단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길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깨어 있는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 세대를 초월해 새로운 인연을 맺은 여러분을 축하하며, 이 소중한 인연을 꼭 간직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축사에 이어 총 76명의 학생들에게 멘토인증서가 수여되었고 이어 우수 멘토와 멘티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특별히 이번 결연식에서는 지난 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시상 및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사랑의 줄 잇기’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풀었던 채지나 학우(상담심리학과 2)에게 최우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한편 다른 사이버대학들도 롤모델로 삼을 만큼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는 SCU 멘토링 프로그램은 ‘Sharing(나누고), Challenging(도전하며), Unified(하나 되는)’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같은 학과 선후배인 멘토와 멘티가 만나 온라인 교육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개강부터 종강까지 14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 SCU 마라톤 클럽 발대식



지난 8월 23일 (토)에 SCU 마라톤 클럽(이하 '서마클')의 발대식이 있었다. 학생은 물론 교수 중에서도 마라톤을 즐기는 구성원이 많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마라톤 동아리가 결성된 것이다.

공식적인 동아리 출범 전에 이미 마라톤을 사랑하는 서사대인들은 팀을 이루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네이버 동호회 소프트웨어인 '밴드'를 통해 교류하던 50여 명의 서마클 회원들은 2014년 7월 월드컵 마라톤 대회 참가 겸 번개 모임으로 첫 만남을 가졌고, 이날 공식적인 동아리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그동안 앞장서서 모임을 주도했던 사회복지학부 4학년 남송모, 사회복지학부 3학년 남태우 학우가 진행을 맡았다. 서마클 회원 50여 명과 평소 마라톤을 즐기는 상담심리학과 박중선 교수와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졸업생 대표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한마음산악회 회장, 전임 학생회장 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새로운 동아리의 시작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한편 서마클 회원들은 오는 10월 26일 춘천마라톤을 시작으로, 11월 9일에 열리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중앙일보가 함께 하는 'Let's Run!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선히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SCU 마라톤 클럽 다음 클럽 주소 <http://cafe.daum.net/skaskasm>  
(DAUM 검색어 창에서 '서사대 마라톤'으로 검색)

01 발대식을 마친 후 전체 기념 촬영  
02 마라톤 클럽에 대해 설명하는 남태우 학우  
03 축사를 하고 있는 전광호 교수

# 국립발레단 주요 인사 상견례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지원 대학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또 한번 특별한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였다. 바로 지난 9월 14일(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국립발레단 황선혜 이사장 및 강수진 단장 취임 축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과 현재 국립발레단 이사로서 있는 허묘연 부총장을 비롯, 서울사이버대 교수들과 수많은 발레계·무용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자리를 만들었다.

서울사이버대 이세웅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예술 분야 인재 양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 오신 신임 황선혜 이사장님의 취임 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국립발레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상견례에는 새로이 국립발레단 이사로서 임명된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상무,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도 함께 참석하여 국립발레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국립발레단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면서 문화예술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01 감사패를 받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02 식사 전 강수진 예술감독과 함께 축하하는 참석자들  
03 국립발레단 이세웅 명예 이사장, 황선혜 이사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기념 촬영



01 감사패를 받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02 식사 전 강수진 예술감독과 함께 축하하는 참석자들  
03 국립발레단 이세웅 명예 이사장, 황선혜 이사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기념 촬영



01

Toward the World!

# 국제적인

# 사회복지전문가가 되다!

2014 사회복지학부 · 휴먼서비스대학원 일본 사회복지 현장실습

일본 후쿠오카 소재 노인시설 실습 및 견학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강의를 듣고 있는 실습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지난 6월 6일(금)부터 7월 12일(토)까지 국내와 해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실습은 6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 하남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이어 6월 30일(월)부터 7월 5일(토)까지 일본 후쿠오카 소재 노인시설에서 강의를 수강한 후 나나쿠마노사토 그룹 홈 및 소규모 다기능케어 이즈미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학부 박기훈 교수와 실습 수퍼바이저 최영순 국장, 그리고 학부생 6명과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된 이번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국내와 일본의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비교함으로써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이 국제적인 사회복지전문가로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번 실습의 전체 준비와 인솔을 맡은 박기훈 교수는 향후 고령화 사회를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본 실습을 통해 절실히 느꼈으며 사회복지학부 교육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내 및 국외의 실습을 통해 제도 및 문화의 차이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를 큰 시점에서 전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재학생들의 다양한 실습유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안목과 실력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해외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부 및 휴먼서비스대학원의 대내외적 역량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고 있다.



01 나나쿠마노사토 실습지  
 02 실비용품 사용 설명을 경청하는 실습생들  
 03 개호노인복지시설 아일랜드시티테루하 견학

#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이겨내는 손자병법

부동산학과,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손자병법과정' 무료강좌 개설



01 강의를 진행하는 박찬웅 교수  
02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부동산학과 특강  
03, 04 강연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9월 20일(토)부터 10월 11일(토)까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손자병법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온·오프대학 중에 유일하게 무료로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식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더원솔루션 대표이사이자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박찬웅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총 4주간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투자의 최소기준'에 관해, 두 번째 주에서는 '장기간의 불황, 누구를 절벽으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주에서는 '비틀어봐야 황금시장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부동산가치가 더 떨어져 좋은 시장' 등 기존에 부동산 강의의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번 특강은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재학생들은 이론 교육외에 실용적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학과는 이번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손자병법 과정' 외에 '부동산공법실무에 대한 핵심과정', 'NPL(부실채권)투자의 옥석가리기과정', '부동산공법경매에 의한 투자비법', '재개발·재건축의 옥석가리기과정', '부동산경매손자병법과정 1차~3차',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하여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에 대한 부담 없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특강을 통해 지식 나눔에 앞장 서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선두 학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온라인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화상교육시스템

대학원 교과목 전반에 화상교육과정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 효과를 높여



최신의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대학원 교과목 전반에 걸쳐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업 시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실시간 화상세미나시스템, 실시간 논문첨삭 및 지도 등의 온라인 논문지도 시스템은 물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온라인 상담 시스템까지 구축해 냈다.

이에 4학기 이상 학생들이 수강하는 논문연구세미나 같은 경우, 소수의 학생들이 사전에 연구논문을 읽고 연구 주제, 연구문제, 연구방법을 토론하고 교수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논문연구를 하고 있다.

상담심리대학원 논문연구세미나를 수강 중인 황민정 학우는 "직장생활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 평일에 교수님을 뵈고 수업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화상 세미나를 통해 퇴근 후 집에서, 혹은 출장 중에도 언제든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며 화상교육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김은수 학우 역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교수님께 질문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녹화를 하여 반복 수업이 가능하다"며 화상 교육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화상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며 바쁜 생활을 하는 직장인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방법이며 최상의 교육서비스시스템이다.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는 상담심리대학원 논문연구세미나 (김현진 교수) 모습

# 군 친화적인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Ⅰ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특강 실시



01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의 리더십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군 간부들 모습

올해는 유난히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군 친화적인 대학이라는 모토로 병사 부대 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군경상담학과를 주축으로 심리상담학부에서 만들어진 군상담 프로그램은 각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군에서 더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먼저 소개할 프로그램은 군인 간부와 분대장급 병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이다. 10회기로 구성된 상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에서는 상담의 전반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상담실습을 실시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군간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리더십과 의사소통 기술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사실 군인의 특성상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곳에 근무하는 군인의 가족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인가족을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도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군인가족들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관심사병을 위한 그린 캠프의 지원이다. 그동안 군은 자체적으로 부적응병사를 위해 그린 캠프로 명명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예산과 강사 수급 부족, 오지에 위치한 부대에서의 부실한 운영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달 1회,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린 캠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부적응 병사들이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다.

#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 특강

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



01 특강을 마친 후 전체 기념 촬영  
02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유기풍 총장

지난 7월 29일(화)에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의 특강이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한국 교육의 미래, 대중 온라인 교육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유기풍 총장은 특강에서 "영어가 세계적 표준 언어가 된 지금, 영어 외의 언어로 글로벌 표준 지성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ICT 혁명 역시 대학 교육환경 변화의 큰 축"이라고 역설했다. ICT란 우리가 잘 아는 IT 즉 'Information(정보), Technology(기술)'에 'Communication(통신)'이 추가된 개념이다. ICT 산업, ICT 부처 등등의 용어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개념이기도 하다. 유기풍 총장은 산업화시대에서 지식정보시대로 급변하는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처럼 원격 대학이 맡은 임무는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 온라인 공개수업(영어: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에 따른 오프라인 대학의 대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공개수업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교육을 의미한다.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이 보충 자료가 되는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온라인 공개수업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조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공개수업은 원격교육이 진화한 형태이다. MOOC에 참여하는 세계적 대학이 늘어나면서 서강대학교 역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참여 각을 밝혔고, 이 분야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앞서갈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리더 원격대학으로서 분발을 당부했다.

제7회 2014 Seoul Cyber Intemational Design Competition

#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http://multi.scu.ac.kr/sangsang>

### 출품기간

2014. 9. 1(월) ~ 2014. 11. 15(토)

### 수상자 발표

2014. 12. 1(월)

### 응모분야

- 자유 '제한 없음'
-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부문  
아이덴티티/패키지디자인, 캐릭터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순수그래픽/편집디자인/광고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Multimedia Design) 부문  
UCC동영상, 동영상타이틀, 플래시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부문  
패키지, 설치물(옥외광고, POP), 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 응모자격

- 접수 및 제출규격
- 학생부 : 고교재학생(일반 ·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재학생 및 4년제 대학 재학생
- 일반부 : 일반인

### 응모방법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홈페이지  
<http://multi.scu.ac.kr>에서 공모전 배너 클릭 후, 공모전 홈페이지  
<http://multi.scu.ac.kr/sangsang>에서 기본정보 기입 후,  
 작품 업로드

### 시상내역

대상 : 1팀 상장 및 상패, 상금 300만원  
 금상 : 1팀 상장 및 상패, 상금 100만원  
 은상 : 3팀 상장 및 상패, 상금 50만원  
 동상 : 3팀 상장 및 상패, 상금 30만원  
 특선 · 입선 : 상장

※ 특선 이상 수상작은 2014. 12. 16(화) ~ 20(토)까지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제7회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공모전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적 인지도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신·편입생의 입학률 상승을 도모하고, '창의성'으로 나타나는 확산적 사고와 융합력이 디자인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종합하여, 디자인적 발상연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향후 창의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전망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제6회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전시회 커팅식 현장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복지학부  
복지시설경영전공

## 제1회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시설경영전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회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리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주제 및 내용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 아이디어”**

(최근 본인이 창업한 경우도 참여 가능)

### 참여 대상

본교 재학생 및 동문(개인 혹은 2인 이상 팀, 모두 가능)

### 경진대회 일시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회의실)

### 모집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4년 10월 1일(수) ~ 11월 1일(토)
- 제출방법 : 교내포털 복지시설경영 조교 이메일(kyung@iscu.ac.kr), 편지함(kyung)
- 제출서류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서(첨부파일)

### 심사 및 시상

- 예심 : 신청서 내용으로 서류 심사
- 결과 발표 : 11월 10일(개별전화 및 이메일 통보)
- 본심 : 11월 29일(토) 3시~5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시상내역

- 최우수 1팀 : 30만원 상당 기념품 (아이디어에 대한 무료 컨설팅 지원예정)
- 우수 2팀 : 15만원 상당 기념품
- 장려상 : 소정의 기념품

학교소식

초등학생 진로탐색&집단 상담 자원봉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과 집단 상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심리학과와 상담심리대학원이 힘을 합쳐 진행하기에 더욱 의미가 큰 이번 자원봉사는 강북구 신방학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5학년 학생들은 10월 13일(월)에서부터 17일까지(1회기), 10월 20(월)에서 24일(금)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상담을 실시하고 다음 달 11월에는 6학년 학생들에게 똑같이 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4일(토) 본교 B동 104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아 더욱 집중하며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자원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리더)과 학부생(코디너)들은 집단상담이 끝난 후 담당교수로부터 피드백과 슈퍼비전을 받고 사후 모임을 갖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실제로 집단상담 진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01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있는 현장  
02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임정선 교수

지식과 열정으로 똘친 상담심리연구회



01 상담심리연구회 스터디 모임 현장  
02 지난 7월 12일에 열린 공개상담사례 발표회 현장

상담심리대학원은 지난 1학기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상담심리연구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를 결성한 김현아 교수는 결성 목적에 대해 "상담심리전공 석사공부를 하고 있지만 상담방법과 자격증 취득 심지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스킬 등 실제적인 상담법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4기뿐 아니라 3기, 2기 대학원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기에 연구회 활동이 무척 즐겁다"라고 말한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상담심리연구회는 1학기 때는 상담기술, 이론 등 기본 개념에 대해 배우고 2학기 때는 보다 사례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2일(토)에는 연구회 학생들이 상담심리 관련 교수진과 학생들 앞에서 공개상담사례발표회를 가졌을 정도로 단순한 스터디 모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담심리연구회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올 12월에 지난 1년 간의 연구회 활동을 결산하는 발표회를 또 한 차례 계획하고 있다.



교직원 및 재학생, 국립현대무용단 '불쌍' 단체 관람



10월 10일(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 공연이 있었다. 이날 공연에는 강인 총장, 허모연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이 단체로 관람하여 깊어가는 가을, 또 한번의 문화생활을 즐겼다.

국립현대무용단 '불쌍'은 안애순 예술감독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009년 LG아트센터 초연 이후 2010년 호암아트홀 재공연, 2014년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국립현대무용단 시즌 개막작에 이어 국내에서 갖는 4번째 무대이다.

'불쌍'은 종교적 상징인 '불상'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불상이 신의 얼굴이 아닌 속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임을 역설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패션디자이너 임선옥의 무대 의상과 설치예술가 최정화의 불상 오브제로 채워진 무대에서 총 14명의 무용수들은 DJ 소울 스키이프의 라이브 디제잉에 맞춰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보였으며, 이들의 춤사위 하나하나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01 공연 시작 전 기념 촬영  
02 포토존에서 촬영하며 공연을 기다리는 교직원들

이러닝 역량강화를 위한 베트남 현지 교육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 25일(월)에서 8월 27일(수)까지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HUST) 내 이러닝센터에서 CLMV 이러닝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회원대학 스튜디오 엔지니어와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 내 저작도구 활용 교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스튜디오 엔지니어에게는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 이해력 증진과 함께 교수설계자가 제공하는 스토리보드에 따라 기재를 활용하여 이러닝 과정 개발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저작도구활용 교수자에게는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영상,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오브젝트를 결합하여 하나의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무국은 CLMV 회원대학 콘텐츠 개발 지원 및 컨설팅 사업 수행 업체와 공동으로 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01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HUST) 내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참가자와 함께  
02 멀티미디어 오브젝트를 활용한 수업 현장

| 학교소식

**배려와 신뢰로 뭉쳐진 SCU골프 동아리**

SCU골프 동아리는 지난 10월 8일(수)에는 회원들이 한 해 동안의 같고 닳은 실력을 뽐내는 SCU동아리 회장배 대회를 진행하고, 푸짐한 상품과 즐거운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2007년 8월 17일 첫 라운딩으로 시작으로 출발한 SCU골프 동아리는, 온라인으로는 정보교환과 친목 도모를, 오프라인으로는 실속 있는 라운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모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어우러져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경기도 여주CC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배려와 신뢰로 뭉쳐진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은 동아리 중 으뜸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서사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며 최고의 동아리로 거듭나기 위해 2012년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1회 총동문회장배 대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014년 11월 제3회 총동문회장배 대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SCU골프 동아리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매년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도 십시일반 모은 120만원을 학교 측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렇듯 SCU골프 동아리는 앞으로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사대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01 SCU동아리 회장배 골프대회 중 기념 촬영  
02 SCU골프 동아리 장학금 기부식에서



수락산 산행 중 단체 기념 촬영

**함께하는 '휴먼가족' 수락산 등반대회**

지난 10월 9일(목) 한글날을 맞아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동문회와 원우회 주최로 '휴먼인 등반대회'가 동문들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락산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등반대회에서 휴먼서비스대학원 동문들과 원우들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산행을 하며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친구의 자리를 가졌다. 산행이 끝난 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등반대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진정한 '휴먼가족'을 이루어가자고 다짐하였다.

**한국폴리텍 II 대학과 상호협력 방안 논의**



김광철 학장을 비롯한 한국폴리텍대학 II 방문단과 함께

방문단은 먼저 이세웅 이사장을 접견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무위원들과 함께 대학홍보 동영상을 관람하였으며 이후 B동 회의실로 이동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자랑하는 특허받은 교수학습시스템인 SCU WAVE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캠퍼스투어 및 사진 촬영과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 및 한옥 게스트하우스 구리당에서의 티타임을 끝으로 방문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국폴리텍 II 대학이 상호이해와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향후 상생발전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폴리텍 II 대학의 김광철 학장 일행이 지난 10월 8일(수)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폴리텍 II 대학은 1968년 국내 최초의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1992년 인천기능대학으로 개칭하고 산업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06년 한국폴리텍 II 대학으로 재출범하였다. 수많은 산업인재를 배출한 한국폴리텍대학 중 가장 유서 깊은 대학으로서 인천, 남인천 및 화성에 3개의 캠퍼스를 두고 인천과 경기지역의 기술 기능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특히 인천캠퍼스는 한국폴리텍대학 전체 34개 캠퍼스 중 가장 큰 캠퍼스다.

이번 방문에는 김광철 학장을 비롯하여 김병환 학생처장, 위진우 정보통신시스템과 학과장, 신민화 컴퓨터정보과 학과장, 김경희 교양학과 교수 등이 함께 하였다.

**러시아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과 상호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6일(월) 러시아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과 양 기관의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학술정보교류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은 러시아 연방의 국립도서관 3곳 중 하나이면서 유일한 디지털도서관으로서 2009년 5월 개관하여 금년으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젊은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현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년에 러시아 전역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헌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푸틴의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와 연결 링크가 구축되었다. 도서관의 이름은 러시아의 첫번째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1931-2007)의 이름을 따서 제안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에서는 알렉산드라 토마세비치 국제협력담당관 등 3명의 인사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였다. 금번 상호협약에서 양 기관은 공동의 정보 및 문화공간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양 기관의 상호 이익이 되는 문서 및 최신 기술 정보 자료의 교환, 양 국가의 법과 공동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접근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과의 협약 체결과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러시아 보리스옐친대통령도서관 방문단과 함께

국제무역물류학과  
원산지관리사 취득을  
온라인 강의 지원

국제무역물류학과는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학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재학 중 1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 만족도 제고를 꾀함과 동시에 타 대학이 따라올 수 없는 국제무역물류학과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에 이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학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FTA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증명서 관리,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과 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본 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원산지 전문가 인력 확보의 증빙이 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 결정기준이며, 전 과정 수료를 토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소식

- 2013학년도 2학기
  - 사회복지전공 원우회 김옥환 동문 100만원 장학금 기부
- 2014학년도 1학기
  - 상담심리전공 원우회 손종호 동문 100만원 장학금 기부
- 2014학년도 2학기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외래교수 박선미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와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각 50만원, 총 100만원 기부
  - 상담심리전공 박선미 학우 50만원 기부

교수동정

**권구순 교수**  
e-learning 관련 논문 발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4 원격 교육관련 국제회의(ICODEL 2014, 마닐라)의 '제1세션'에서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E-learning based Academic Collaboration among Conventional Universities in ASEAN"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선정 교수**  
행정학 관련 저서 출간  
법 무 행정 학 과 김선정 교수는 2014년 8월 30일에 「행정학의 이해」(한국학술정보㈜)를 출간하였다.

**김영민 교수**  
녹색물류인증 관련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된 '제2회 2014년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에서는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녹색물류성과의 관계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지영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발표  
상담 심 리 학 과 김지영 교수는 2014년 8월에 열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성격강점 및 성격장애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병석 교수**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발행 중문학술지 『當代韓國』 2014년 제2호에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형성 중의 인류안전 의제와 국제레짐 탐색」(構建'東北亞人類安全共同體'中的人類安全議題和國際機制探索)이란 중문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태정 교수**  
사회복지 관련 저서 출간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4년 7월 10일에 「사회복지역사탐구」(학지사)를 출간하였다.

**윤현중 교수**  
한국인사관리 학회 이사 위촉 및 논문게재  
경영학과 윤현중 교수는 한국인사관리학회 31대 이사로 위촉되었으며, 2014년 4월 30일에 발행된 『동중아시아연구』에 「임금피크제: 현황과 주요 이슈」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하였고, 2014년 10월 30일에 발행된 『벤처창업연구』에 「기업가적 지향성의 성과 효과 재검토」라는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성태 교수**  
Honey Bee Dance 게임 관련 논문 게재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4년 5월,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Engineering』에 "A Study about Honey Bee Dance Serious Game for Kids Using Hand Gesture"을 게재하였다.

**이은주 교수**  
한국연구학회 부회장으로 선임  
사회 복지 전 공 이은주 교수는 지난 5월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연구학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완형 교수**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는 2014년 9월 18일 교육부가 주관한 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의 국제학술대회 'ASEAN e-Learning Workshop'에서 "The e-learning model for online seminar class through CBL"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9월 19일에는 한국무역학회가 주관하고, 서울 COEX에서 개최된 국내학술대회 '2014년 제4차 학술대회'에서 「한중 FTA를 고려한 평택항 권역 산업발전방향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우경 교수**  
중년 심리 관련 저서 출간  
상담 심 리 학 과 이우경 교수는 2014년 10월에 중년 심리 관련 대중서 「머물고 싶은 남자, 떠나고 싶은 여자; 마흔 이후 나를 위한 45가지 심리카운슬링」(한겨레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이향아 교수**  
논문 게재 및 한국미술협회 위원 위촉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한국과 학예술포럼 vol.17호」에 온라인 색채 교양 강좌의 학습 증진을 위한 모델 분석 「S대학교의 '나의 삶 속의 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한국미술협회 디자인분과 디자인발전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세희 교수**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4년 8월 30일 한국사회보장학회에 발행하는 『사회보장연구』 제 30권 제 3호에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를 게재하였다. 또한 양서원의 「가족복지론」에 새로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개정판을 8월 30일에 출간하였다.

**전광호 교수**  
기업위기대응전략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4년 7월 『유통연구』(19권 3호)에 「패스트푸드 기업의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위기책임 귀인요소와 메시지 유형이 고객의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상원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 복지 전 공 정상원 교수는 2014년 9월 30일 발간한 학회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권 제3호에 「사회복지사의 직무적합성과 직무상실가능성이 일탈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학회지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7권에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영애 교수**  
Gender Education 관련 논문 발표  
사회 복지 전 공 정영애 교수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UPOU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학회 주관 국제심포지엄'에서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ender Education through e-Learning in Cyber Universitie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채정민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발표  
상담 심 리 학 과 채정민 교수는 2014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우울 연구를 위한 문화심리학적 고찰과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가을의 서정을 깊어지게 할 책 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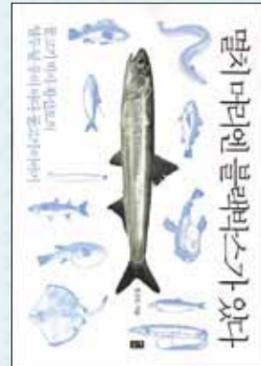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독서는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책과 사람이 깊어가는 계절, 여러분의 지식과 감성을 행복하게 물들일 책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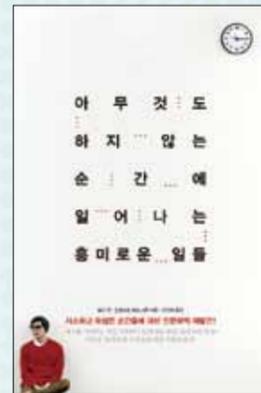
**우리 마음을 흔든 고은 시 100편을 다시 읽다**  
**<시의 황홀>**  
 저자 고은  
 출판 알에이치코리아

'우주의 사투리로 노래하는 시인' 고은의 반세기 문학인생에서 길어 올린 수작 100편을 담은 책. 1958년 고은 시인이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할 때 추천작 중 하나였던 '천은사운'부터, 가수 양희은에 이어 재즈가수 나윤선이 노래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세노야', 미국 시인으로 풀리처상 수상자인 게리 스나이더가 고은만이 쓸 수 있는 시라고 극찬한 단시들까지 모두 담았었다. 여기에 실력파 일러스트레이터 조성민이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렸다.



**물고기 박사가 들려주는 열두 달 우리 바다 물고기 이야기**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저자 황선도  
 출판 부키

어류는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한편으로, 맛깔스러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아귀는 왜 물텀병이라고 하는지, 전어는 왜 가을에 맛있는지, 뱀장어는 어디를 떠돌아다니는지 등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주면, 식사는 더욱 즐거운 자리가 된다. 이 책은 30여 년 동안 어류를 연구한 전문가인 저자가 각 어류의 인문, 사회, 역사적 내용을 골고루 풀어내 마치 백과사전을 보는 듯 읽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사소하고 하찮은 순간들에 대한 인문학적 재발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  
 저자 빌리 엔, 오르바르 뢰프그렌  
 역자 신선해  
 출판 지식너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입장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줄을 서 있는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치질, 걸으려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의 일상생활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죽어야 할 시간들에 대한 기발한 해석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의 비밀을 최초로 밝혀낸다.



**사랑과 전쟁과 천재성에 관한 DNA 이야기**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지>**  
 저자 샘 킨  
 역자 이종호  
 출판 해나무

이 책은 유명 인사들뿐 아니라, 유전자와 DNA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전자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천재성과 광기, 전쟁, 개인과 사회의 갈등, 모험, 과학자들의 정직함과 비열함 등 사람들의 갖가지 모습을 DNA 연구의 역사를 배경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내는 책. 읽다 보면, 유전자와 DNA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것 같은 깨우침을 준다.

#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가꿔줄 공연 세 편

점점 몸이 움츠러 드는 날씨가 다가올수록 문화 공연은 더욱 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옵니다. 오감을 짜릿하고 따뜻하게 깨워 줄 공연들을 보며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는 건 어떠할까요?

## Performances



**성탄절의 환상을 재현해낸 꿈결 같은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클래식 발레 3대 걸작으로 손꼽히며 전세계 발레팬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호두까기 인형』 국립발레단의 제 157회 정기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은 지난 2000년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 이후 13년간 전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웅장하면서도 가벼운 몸놀림의 춤과 안무로 크리스마스의 들뜬 분위기에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예매를 서두를 것.

**기간** 2014. 12.20 ~ 12.28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내 클래식 스타 8명의 릴레이 콘서트**  
**<클래식 스타 시리즈>**

『클래식 스타 시리즈』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섬세하고 풍부한 선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11월에는 국내 최정상급 첼리스트인 양성원(11.25),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는 테너 김재형(11.26), 12월에는 국내의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거장 시리즈로 피아니스트 강중모(12.16),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12.17)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청중과 연주자가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연주자와 연주자가 서로 소통하며 음악을 만들어내는 '실내악'의 향연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기간** 2014. 10.14~ 12.17 PM 08:00  
**장소**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2014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 1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04년 초연된 이후, 매 해 공연마다 신 기록을 수립하며 전회 매진, 전회 기립박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한국 뮤지컬의 영원한 전설 『지킬앤하이드』가 10주년 기념공연을 펼친다.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던 『지킬앤하이드』는 올해 역대 배우 중 최다 출연을 기록(17회)한 류정환과 전 출연회차를 매진시키며 흥행을 이끈 조승우 외 지난 10년 간 무대를 빛낸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다. 한편 『지킬앤하이드』는 1886년 영국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10여 개국에서 공연된 바 있다.

**기간** 2014. 11.21 ~ 12.14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